

# 새로운 전략거점 개발과 컬처노믹스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전략

이미령

광진구청 경영기획국장

mylee3@gwangjin.go.kr

## I. 추진배경

- 1995년 성동구에서 분구한 광진구는 서울의 동부, 한강의 북안에 위치하여 서울 동북지역의 진입관문으로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일 뿐 아니라 아차산과 한강, 어린이대공원 등 풍부한 오픈스페이스(녹지공간 등)를 보유한 도심속 친환경 주거지역이다.

〈표 1〉 광진구 도시계획 현황

전체 면적 (비율)	주 거 지 역						상업지역		녹지지역	
	소계	제1종 전용	제1종 일반	제2종 일반	제3종 일반	준주거	소계	일반 상업	소계	자연 녹지
17.05 (km <sup>2</sup> )	11.39	0.04	2.34	5.82	2.36	0.83	0.18	0.18	5.48	5.48
100%	66.58	0.23	13.72	34.11	13.84	4.86	1.05	1.05	32.14	32.14

- 광진구의 용도지역별 현황을 보면 주거지역은 전체면적 17.05km<sup>2</sup> 중 11.39km<sup>2</sup>로 전체면적의 66.6%, 자연녹지 지역은 5.48km<sup>2</sup>로 32.1%에 달한다. 반면, 도시경쟁력을 가늠할 수 있는 상업지역은 0.18km<sup>2</sup>로 1.05%에 불과하다.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25위에 해당된다. 또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서울시 평균은 10.8% 인데 비해 광진구는 13.72%, 공동주택의 경우 서울시 평균은 56.35%인데 광진구는 38.7% 밖에 되지 않는 등 공동주택의 비율은 적고, 단독주택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. 이는 서울시 자치구중 22위에 불과한 수준이다.
- 현재 광진구는 주거중심의 토지이용으로 지역발전 한계에 봉착해 있고, 주거지역의 노후화로 생활환경이 악화되고 있다. 뿐 아니라 아차산, 어린이대공원 등 자연자원 주변에 과도하게 지정된 최고고도지구, 자연경관지구, 역사문화미관지구 등의 행위 제한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.
- 이러한 이유 등으로 도시경쟁력을 좌우하는 재정자립도는 47%에 불과, 서울시 평균인 50.8%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.
- 민선4기 CEO출신 정송학 구청장의 강력한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은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.
  - 대형마트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재래시장 상품권과 공용 쿠폰제는 일일매출액을 50%이상 증가시키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고, 이는 시장혁신의 좋은 사례로 평가받아, 전국 재래시장의 벤치마크 대상이 되고 있다. 한편 구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재래시장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전국 최초로 재래시장 주차장 및 배송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.
  - 구는 2007년부터 “2천만원 이하의 공사·용역·물품” 구매시 『관내 우수제품 우선 구매제도』를 실시, 현재까지 100억여원의 관내 우수제품을 구매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앞장서고 있다.
  - 매출 1,500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재계 872위인 경기고속과 재계 1042위인 대원고속 등 11개 운수회사를 산하에 두고 있는 KD그룹 본사를 광진구로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. 이들 기업은 앞으로 광진구 지역경제 발전에 적잖은 기여를 할 것임은 물론 광진구는 앞으로도 유망기업 유치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벌여나갈 계획이다.

- 건국대학교와 GTEP(Global Trade Experts Program,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사업) 사업 협약을 통해 해외진출 경험이나 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내 중소기업체에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, 통·번역 서비스는, 무역상담, 실무교육, 수출입대행 등 다양한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.
- 중소기업육성기금 등으로 545억원(2008년 대비 245억원 증가)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의 자금난 해소에 노력하였다.
- CEO 출신 구청장의 이러한 소프트웨어적 노력이 많은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, 기업유치를 위한 기반시설 부재와 미흡한 상업시설은 지방세 등 자주 재원 부족으로 이어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원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.
- 광진구는 장기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도시계획을 통한 자족 가능한 도심 재창조, 문화를 원천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조하는 컬처노믹스(Culturenomics)를 통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.

## II. 추진방향

- 새로운 전략거점 개발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
  - 구의·자양재정비촉진지구
  - 용도지역(상업시설) 상향조정(1.05%→2.14%)
- 컬처노믹스(Culturenomics)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
  - 아차산고구려역사문화관 건립(남한 최대의 고구려 유물·유적 활용)
  - 상상, 창조, 감성이 가미된 디자인 도시

### III. 새로운 전략거점 개발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

#### 1. 구의·자양지구 재정비촉진지구

##### ○ 계획의 개요

- 위치: 광진구 구의동 246, 자양동 680번지 일대 (2006년~2018년)
- 면적: 385,340㎡

##### ○ 대상지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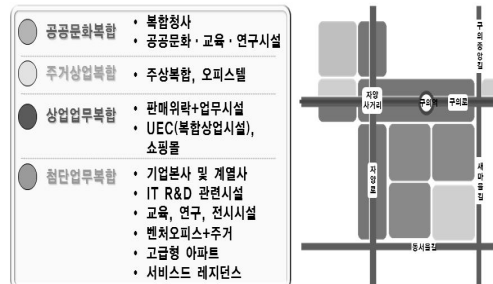
- 한강이 인접해 있고,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역세권
- 대규모 저이용부지(국가시설) 입지로 중심 기능 수행 한계
- 동부지방법원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 필요

##### ○ 개발목적 및 방향

- 서울동북부 지역중심에 부합하는 첨단비즈니스타운 건설
- 통신 및 IT, R&D 첨단기술 분야 선도기업 유치
-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특화산업 BIZ타운 형성



[그림 1] 조감도



[그림 2] 배치도

##### ○ 건축 및 주택공급 계획

- 상업·업무와 주거기능이 결합된 최고 150m, 용적률 400~560%, 20~35층의 도심형 주상복합건물
- 주택공급량은 총 2,597세대(임대주택 820호, 시프트 280호), 주택규모는 전용면적

60m<sup>2</sup>, 85m<sup>2</sup>, 115m<sup>2</sup>임

○ 교통환경 개선

- 구의로는 25m  $\Rightarrow$  35m로, 동서울길 10m  $\Rightarrow$  25m, 새마을길 8m  $\Rightarrow$  20m 등 12~15m로 확장
- 교차로 개선을 통한 교통체제 재정비
- 자전거 전용도로 총연장 2.5km 개설, 자전거 보관소(1천대)

○ 문화공원과 광장조성

- 9개의 특화공간조성 : 구의역 시민광장, 디지털 미디어광장, 중앙 가로공원, 문화공원, IT&문화광장, 첨단 Market Plaza, 자양사거리광장, 공공문화센터, 미가로 중앙광장
- 도서관, 박물관, 주민 커뮤니티시설 등 문화공간 제공

○ 기대효과

- BIZ타운 건설 등 상업지역 육성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
- 생동감 넘치는 지역중심지로 육성

## 2. 용도지역(상업시설) 상향

○ 상업지역 현황: 전체 면적 17.05km<sup>2</sup> 중 0.18km<sup>2</sup>(1.05%)

○ 추진목표

- 면적: 180,000m<sup>2</sup>  $\Rightarrow$  365,576m<sup>2</sup>(증 185,576m<sup>2</sup>)
- 비율: 1.05%  $\Rightarrow$  2.14%(증 1.09%)

○ 추진계획

- 지구단위계획재정비, 구의·자양재정비촉진계획 및 GGDp 용역에서 상업지역 확대 타당성 논리근거 마련

○ 추진대상구역: 천호대로변, 군자역 주변 등 5개 지역 185,576m<sup>2</sup>

○ 기대효과: 도시경쟁력 확보 및 지속가능한 도시재정비

## IV. 컬처노믹스(Culturenomics)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

### 1. 아차산고구려역사문화관 건립

#### ○ 추진배경

- 21세기는 문화로 교부가가치를 창조하는 문화산업의 시대
- 스페인 빌바오 등 세계 유수의 도시들이 컬처노믹스(문화컨텐츠)를 통하여 교부가가치를 창조하고 있음.
- 광진구 아차산은 남한 최대의 고구려 유적지로서 유적 보존의 필요성
  - 아차산성(사적 제234호), 아차산보루군(사적 제455호) 9개소, 유물 5,600점
- 중국의 동북공정에 의한 고구려 왜곡에 대응



[그림 3] 홍련봉 보루 발굴사진



[그림 4] 아차산고구려역사문화관조감도

#### ○ 건립개요

- 위치: 광장동 384-8외 21필지
- 규모: 지하1/지상2층, 37,444 m<sup>2</sup>
- 사업비: 395억원(국비 64억, 시비 64억, 구비 267억)
- 시설: 전시관, 학예연구실, 체험관, 홍련봉 제1,2보루 복원
- \* 문화체육관광부 등 7개 기관 아차산 일대 고구려유적 활용방안 정부연구용역결과  
광진구 아차산고구려역사문화관 건립 확정

○ 기대효과

- 고구려의 웅대한 기상과 혼, 아차산성, 홍련봉 보루 등 유물·유적, 온달 장군과 평강공주의 사랑 이야기<sup>1)</sup>, 민족사적 정통성과 ‘2000년 고도의 역사성 회복’ 하고자 하는 역사·문화 마케팅(스토리텔링)을 통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

## 2. 상상, 창조, 감성, 전통이 어우러진 디자인 도시

○ 광진구에서는 공공시설물 건립에 있어 상상, 창조, 감성, 전통이 어우러진 공공디자인 개념을 도입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다.

- 지하철 2호선 강변역사: 무영총벽화의 수렵도를 테마로 한 공공디자인 개선
- 문화공연, 휴식, 한강조망이 가능한 청담대교 자벌레데크(서울시 추진)
-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탄생한 광진교 리버뷰 8번가



[그림 5] 강변역사



[그림 6] 자벌레 데크



[그림 7] 리버뷰 8번가

## V. 결 론

○ 광진구는 지역균형발전, 지역경제활성화, 문화·관광 그린행정을 구정방향으로 정하고, 고구려역사문화관 건립, 구와자양재정비촉진지구 등 역점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해 세계적 도시경쟁력을 갖춘 ‘미래도시 행복광진’을 만들기 위해 창의와 열정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.

1) 광진구 아차산은 온달장군이 신라군과 싸우다 전사한 곳